

반환점 돈 프로배구… AI페퍼스, 반등 신호탄 쏠까

오늘 오후 7시 서울장충체육관서 GS칼텍스와 맞대결

7승 12패 승점 20점 리그 6위… 수비 집중력 올려야



페퍼저축은행 AI페
퍼스 여자프로배구단
이 후반기 재도약을
노린다.

AI페퍼스는 6일 오
후 7시 서울장충체육관에서 GS칼텍스 배
구단과 진에어 2025-2026 V리그 여자부
4라운드 두 번째 경기를 치른다.

앞서 지난 2일 AI페퍼스는 IBK기업은
행에게 세트스코어 1-3(16-25 26-24 17
-25 20-25)으로 패배했다.

그 결과 7승 12패 승점 20점으로 리그 6
위에 머물렀다.

AI페퍼스는 시즌 초반까지만 하더라도
외인 공격수 조이와 아시아워터 미들블로
커 시마무라 등의 활약을 앞세워 리그 최
상위권에 위치했다. 그러나 2라운드 두 번
째 경기인 현대건설전에서 승리한 이후 9
연패 터널에 갇히면서 순위가 급락했다.

지난해 마지막 경기에서는 GS칼텍스를 꺾
으며 연패 탈출에 성공했지만, 올해 첫 경
기인 기업은행전에서 연승에 실패했다.

상반기를 마치고 반환점을 돈 현재 V리
그 여자부 중·하위권은 혼전이다.

1위 한국도로공사(승점 40점)과 2위 현
대건설(승점 38점)은 2강 체제를 굳건히
했다. 이어 3위 흥국생명(승점 33점), 4위
GS칼텍스(승점 28점), 5위 IBK기업은행
(승점 27점)이 중위권 싸움을 이어가는
중이다.

AI페퍼스와 7위 정관장(승점 18점)은
하위권을 벗어나기 위한 경쟁을 펼치고
있다.



지난 2일 경기에서 AI페퍼스 조이가 스파이크를
때리는 모습. 사진제공=KOVO

매 경기마다 순위가 바뀔 수 있는 상황
에서 AI페퍼스는 공·수 모든 부분에서 흔
들리고 있다.

5일 경기 전 기준 AI페퍼스는 유일하게
1500점대 득점(1544점)에 머물며 이 부
분 리그 최하위에 위치했다. 또 공격총합

5위(시도 2545회·성공 989회·성공률
38.86%), 오픈 7위(시도 1016회·성공
308회·성공률 30.31%) 등 강력한 공격을
앞세웠던 시즌 초반과는 다른 모습이다.

특히 매년 약점으로 꼽혀온 서브와 리
시브에서 여전히 한계를 느끼고 있다.

AI페퍼스는 현재 서브 7위(시도 1548
회·성공 66회·세트당 0.917개)에 위치해
있다. 서브 공략에서부터 어려움을 겪다



지난 2일 광주페퍼스타디움(염주체육관)에서 열린 IBK기업은행과의 진에어 2025-2026 V리그 여자부 4라운드 첫 번째 경기에서 AI페퍼스 장소연 감독이 타이밍을 가진 뒤 선수단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사진제공=KOVO

보니 상대의 리시브가 수월해진다. 결국
다양한 루트를 활용하는 상대 공격을 막기
에 급급해지는 것이다. 여기에 서브 범실
은 157개로 7개 구단 중 가장 많다. 중요한
승부처마다 발목을 잡히는 요인이다.

리시브 순위는 6위로 리시브 효율이
24.26%(시도 1480회·정확 443회)에 그
친다. 리시브가 흔들리면 공격로가 단순해

지고 결국 막힐 가능성이 높다. 실제 최근
AI페퍼스 경기에서는 외인 조이에게만 공
이 집중되는 현상이 뚜렷하다. 수비가 받
쳐주지 못하다 보니 별다른 돌파구를 찾지
못하는 셈이다.

서브, 리시브 문제가 지속된다면 사실상
반등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번 경기 상대인 GS칼텍스는 현재 9승

10패 승점 28으로 리그 4위에 자리하고 있

다. 최근 3경기에서 2승 1패로 AI페퍼스

가 우위에 있다. 9연패를 끊은 경기도 GS

칼텍스전이었다.

GS칼텍스는 득점과 공격 1위 실바

(609득점·공격성공률 46.11%)가 막강한
화력을 자랑하고 있다. 리시브 3위 유서연

(리시브효율 40.34%), 세트 1위 김지원

(세트당 11.032) 등 또한 힘을 보태는 중

이다. 상승과 하락의 갈림길에 있는 AI페퍼스

가 반등하기 위해서는 이번 경기 승리가

광주FC, 새 시즌 옥석 가리기 나선다

26일까지 1차 전지훈련 돌입
태국 후아힌서 체력 집중 보강
내달 경남서 마지막 담금질



이정규 감독이 5일 전지훈련을 위한 출국에 앞서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제공=광주FC

다"고 강조한 만큼 선수 개개인이 새로운
훈련 시스템과 원칙에 얼마나 빠르게 적
응하느냐가 이번 전훈의 가장 중요한 과
제가 될 전망이다.

이정규 감독은 "광주가 그동안 쌓아온
시스템을 잘 유지하면서, 팀이 한 단계 더
성장할 수 있는 방향을 이번 전지훈련을
통해 만들어 나가겠다"라며 "전지훈련에
서 과정에 집중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좋은
결과가 따라올 거로 생각한다"고 각오
를 다졌다.

특히 이정규 감독이 취임 기자회견에서
"선수를 믿는 것이 아니라 훈련을 믿는

송하중 기자 hajong2@gwangnam.co.kr



1차 동계 전지훈련을 위해 5일 태국 후아힌으로 출국한 광주FC 선수단이 파이팅을 외치고 있다. 사진제공=광주FC

"소통·신뢰 확립…도약하는 전남 체육 만들 것"

전남도체육회 80주년
공정·투명 행정 실현
시무식·청렴 선포식도

전남도체육회가 창립 80주년을 맞아
전남체육의 새로운 도약을 다짐했다.

5일 전남도체육회에 따르면 최근 도
체육회관 1층 다목적체육관에서 임·직
원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6년 시
무식 겸 청렴선포식을 열고, 전남체육
의 미래 비전과 실천 의지를 공유했다.

이날 행사는 송진호 회장의 신년사,
직원 대표의 새해 다짐, "회장에게 바란
다" 소통의 시간, 청렴결의문 낭독 순으
로 진행됐다. 전 임·직원이 한마음으로
공정하고 투명한 조직 운영을 다짐하는
뜻깊은 자리로 마련됐다.

송진호 도체육회장은 신년사를 통해
"2026년은 전라남도체육회가 창립 80



전남도체육회는 최근 도체육회관 1층 다목적체육관에서 임·직원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6년 시무식 겸 청렴선포식을 열고, 전남체육의 미래 비전과 실천 의지를 공유했다.

주년을 맞이하는 매우 뜻깊은 해"라며
"지난 80년간 선배 체육인들이 일궈온
성과를 토대로 앞으로의 100년을 준비
하는 새로운 출발점이 돼야 한다"고 강
조했다.

이어 "도민과 체육인이 체감할 수 있
는 실질적인 변화와 성과를 만들어가기
위해 소통과 신뢰를 기반으로 한 조직

문화를 함께 만들어가자"고 덧붙였다.
"청렴선포식에서 전 임·직원은 공정
하고 투명한 행정 실현을 위한 실천의
지를 다시 한 번 되새기며, 청렴한 조직
문화 정착을 위한 각자의 역할과 책임
을 다할 것을 다짐했다.

도체육회는 앞으로도 정기적인 청렴
실천 활동과 내부 소통 강화를 통해 도

민에게 신뢰받는 체육행정을 구현해 나
갈 계획이다.

한편 전남도체육회는 '전남체육 80
년, 도약하는 100년'이라는 비전 아래
체육 현장의 목소리에 더욱 귀 기울이
며, 전남 체육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미
래 경쟁력 강화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송하중 기자 hajong2@gwangnam.co.kr

여자 핸드볼 H리그, 광명서 10일 개막

광주도시공사, SK와 대결…8개 팀 3라운드 총 84경기

'신한 SOL Bank 2025-2026 핸드볼 H
리그' 여자부 경기가 오는 10일 개막전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레이스에 돌입한다.

H리그는 지난해 11월 남자부가 먼저
개막했다. 여자부는 지난해 11월 27일~
12월 14일까지 독일과 네덜란드에서 열
린 '제27회 여자핸드볼세계선수권대회'
에 국가대표 선수들이 출전하면서 늦게
개막전을 치르게 됐다.

8개 팀이 출전하는 여자부는 오는 4월
19일까지 3라운드에 걸쳐 총 84경기를 치
르며, 4위까지 포스트시즌에 진출한다.

개막전은 경기도 광명시민체육관에서
펼쳐진다.

오후 2시에는 지난 시즌 19연승으로 압
도적인 경기력을 선보이며 통합 2연패를
달성한 SK슈가글라이더즈와 6위를 차지
했던 광주도시공사가 맞붙는다.

오후 4시 15분에는 5위를 차지했던 서
울시청과 8위를 기록한 인천광역시청이
맞대결을 펼쳐 그동안 같고 닦은 전력을
선보인다.



'신한 SOL Bank 2025-2026 핸드볼 H리그' 여
자부 경기가 1월 10일 개막전을 시작으로 본격
적인 레이스에 돌입한다.

송하중 기자 hajong2@gwangnam.co.kr
사진제공=한국핸드볼연맹(KOHA)